

2020. 11. 2. [월] 언론보도

경인방송 TVFM

2020년 11월 02일 (월)
종합

경기관광공사, 임진각 평화누리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제공



임진각 야외공연장 모습. <사진출처 = 경기관광공사>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경기관광공사는 도의 대표적 평화관광지인 임진각평화누리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통신 기반시설공사 및 무선AP 16개소가 설치 완료됐고, 지속적으로 음영지역 보완 및 서비스 최적화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구축으로 임진각평화누리 방문객들은 통신요금 부담 없이 관광지의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찾고 디지털 콘텐츠를 야외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정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접경지 습지 조사

환경부·통일부, 10개월간
김포 보구곶-파주 만우리

김포 보구곶에서부터 파주 만우리까지 남북 접경지역 습지에 대해 정부가 2일부터 생태조사에 들어간다.

지난 2018년 '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남북이 공동으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해 발인 수로 조사의 후속 작업이다. 앞선 수로 조사에서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에 따라 남북 공동 추가 조사를 대비한 것이다.

환경부와 통일부는 10개월간 남북 접경지역인 한강(임진강) 하구의 우리측 지

역 습지에 대해 생태조사를 벌여 남북 공동 추가 조사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강하구 지역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열린 하구이자, 장기간 인간의 간섭이 없어 생물 다양성이 뛰어난 세계적 하천-해양 생태 구간으로 꼽힌다.

정부는 우리측 구역인 보구곶 및 한강

상류부 일대 약 80km 4개 구역에서 조류·포유류·양서파충류·식생·식물상·육상곤충·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어류 등 8개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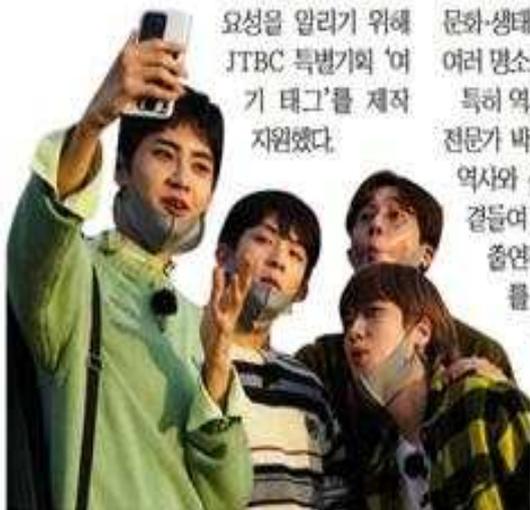
위치추적기 등을 활용해 한강하구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분포 현황 및 특성도 파악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DMZ 궁금하니? 네 남자가 만드는 평화누리길 지도

경기문화재단, JTBC '여기 태그' 제작
앤디·이진혁 등 출연 여러 명소 소개

경기문화재단(대표 강현)이 DMZ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JTBC 특별기획 '여기 태그'를 제작 지원했다.



Let's DMZ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여기 태그'는 예능과 로드다큐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이다.

방송에는 앤디(신화), 나엘(틴탑), 이진혁(업텐션), 리키(틴탑), 수빈(달샤벳), 솔지(EXID) 등 아이돌들이 출연, DMZ 156마일의 역사·문화·생태를 도보로 체험하며 평화누리길의 여러 명소들을 소개한다.

특히 역사전문가 최대성 감사와 DMZ 생태 전문가 박병권 교수 등이 함께 나와 DMZ의 역사와 생태환경에 대한 알기 쉬운 해설을 곁들여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출연진들은 중간 중간 변통선 내 검문소를 통과하는 긴장감을 전달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캠핑과 버스킹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방문지는 ▲김포 예기봉 ▲파주 임진각 ▲캠프 그리브스 ▲연천 환포곶배 ▲통일미래센터 ▲연천 호로고루성 등이다.

특히 파주 임진각에서는 미군 주둔지에서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한 캠프 그리브스와 최근 정식 개장한 평화곤돌라를 체험하며 평화와 예술관광의 명소로 크게 변모한 경기도 DMZ를 보여준다.

강현 대표는 "분단 후 7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전쟁과 분단에 대한 기억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며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분단의 역사에 관심을 두고 알아가는 여정을 통해 이 땅의 평화의 가치와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촬영은 안보지역에서의 제작 특성상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진행됐다.

/강경욱 기자